

올해를 빛낼 광주·전남 스타

광주 벨인퍼컴 볼링 김 여 진

# “체전서 볼링 종합우승 목표”

곡성 출신...올부터 광주소속  
“국가대표 경험 최대한 살려  
후배들과 좋은 성적 거둔다”



“광주에서 열리는 88회 광주전국체전에서 볼링 종합우승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여진(여·27·광주 벨인퍼컴)선수의 2007년 새해를 여는 신년포부다.  
김여진은 곡성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남구청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거쳐 2007년 광주벨인퍼컴에 입단하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광주에 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다년간의 국가대표와 지난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 여자볼링팀 주장으로서 3인조전과 5인조전에서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해 여러 시·도에서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  
자신을 알아주는 곳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김여진에게 곡성이 고향인 아버지 김진택(49)씨의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했다. “기왕이면 고향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 슬쩍 건넨 한 마디가 김 선수의 결정에 큰 힘이 된 것. 또한 평소 김여진 선수를 눈여겨 봐왔던 김종국 광주볼링협회 부회장의 끈질긴 구애도 한 몫했다.  
김여진은 “아버님의 권유도 있었고, 김종국 부회장과 소중히 인연을 생각해 광주에 오게 됐다”며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진은 지난 93년 중학교 2학년때 외삼촌의 권유로 처음 볼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볼링입문 3년만인 고1때 청소년대표, 고교 2학년때부터는 줄곧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으며 어느덧 실업 6년차 대표팀 단원이 됐다.  
지난 98년 방콕아시아게임,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까지 아시아게임에 3번이나 출전했다.  
그렇다고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8년 방콕아시아게임에서는 노메달의 아픔을 겪었다. 99년부터 2년간 아시아 게임을 대비해 휴가마저 반납하고 열심히 했지만 단 한개의 메달도 건지지 못해 운동

을 그만 둘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슬럼프를 극복하고 부산아시아게임에서 3인조전과 5인조전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때부터 김여진은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국내 최강자로 이름을 알렸다. 15파운드 볼을 사용하며 슛 축이 일품인 김여진은 간결한 스윙으로 기록이 없는 정확한 볼링을 구사한다.  
김여진은 생애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광주벨인퍼컴 선수들과 합숙에 들어갔다. 그동안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합

숙을 하지 않았는데 광주에서 생활하게 돼 다른 5명의 선수들과 합숙생활을 하게 됐다. 새로운 경험으로 불편할 듯 싶지만 벌써부터 광주음식과 구수한 사투리가 정겹기만 하다.  
김여진은 “팀이 꾸러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고 맡겼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다.  
혼자가 아닌 5명과 함께 2007년 아침을 여는 김여진의 파이팅이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시리즈 꼭 가겠다”



## ■ KIA 서정환 감독, 구단 홈페이지 올시즌 포부 밝히

“올해 목표는 한국 시리즈 도전입니다”  
서정환 KIA 감독은 2일 새해를 맞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시즌을 회고하고 2007시즌의 각오와 포부를 진솔하게 밝히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서 감독은 “2005년 10월 감독으로 임명되던 날, 내년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가을까지 야구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뤄냈다”면서 “다만 여러분과 저의 숙원인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안아보지 못한 게 죄송스럽다”는 말로 2006시즌을 정리했다.  
서 감독은 또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이라는 좌우명을 안고 살아간다”며 “목표함 속에서 묵묵히 있는 실천이 중요하고,

실행에 옮기면 말이 없어야 한다”라며 자신의 야구철학도 덧붙였다.  
서 감독은 이 때문에 “우리 팀과 저에 대해 왜곡된 얘기가 전해질 때 직접 해명도 하고 싶었지만, 백마디 말보다는 성적으로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다”며 그동안 겪은 마음 고생도 내비쳤다.  
서 감독은 더불어 2007시즌에 대한 비전과 함께 지난 60일간의 훈련 성과도 자세히 풀어냈다.  
서 감독은 “2006시즌이 끝난 뒤 60일간의 훈련기간동안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월등히 좋아졌다”면서 “투수중엔 전병두, 손영민, 진민호, 이동현, 김희철 등이, 야수중엔 조정

환, 이재주, 손지환, 김주형, 김원섭 등의 기량이 크게 늘었다”며 훈련 성과를 평가했다.  
서 감독은 특히 ‘차세대 거포’인 내야수 김주형에 대해서는 “훈련 내내 매일 평균 500개, 스윙 1천개를 해왔다. 주전 3루수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또 5일부터 시작되는 광주홈 시즌에 대해서는 “선수들은 예외없이 스프링캠프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체적전략’도 함께 내세웠다.  
서 감독은 올 시즌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4강, 더 나아가 한국시리즈 진출에 도전할 것”이라며 “단소승자(端笑勝者)라는 말처럼 최후에 웃는 승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는 감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감독이 되도록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각 구단이 밝힌 빅리거 올시즌 전망



서재응 김병현 추신수 최희섭

# 投 ‘맑음’ 打 ‘흐림’

2007년 새해가 밝아오자 미국프로야구 각 구단 홈페이지가 올 시즌 전망을 일괄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서재응(30·탬파베이), 김병현(28·플로리다),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 등 투수들은 선발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린 반면 최희섭(28·탬파베이),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등 야수들은 주전 자리를 꿰차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응과 김병현은 2일(한국시간) 소속팀의 3, 4선발 투수로 거론됐고 백차승은 5선발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클리블랜드 이적 후 빅리그 경험을 쌓은 추신수와 지난해 11월 탬파베이와 2년간 195만달러에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에 있을 때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연봉이 다른 계약)한 최희섭은 빅리그 잔류 또는 재승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 매든 탬파베이 감독은 스타 카즈미어, 케이스 포섬 등 두 좌완 투수 다음에 서재응을 3선발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현은 예상대로 애런 쿡-제프 프란시스-조시 포그에 이어 4선발로 자리 잡았다.  
백차승은 시애틀의 5선발 후보로 제이크 우즈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추신수는 올해 우익수는 케이스 블레이크, 좌익수는 데이비드 멀투치에게 내주고 벤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최희섭은 1루수 타이 위긴턴에 밀렸다.  
탬파베이가 일본 야쿠르트에서 뛰던 3루수 이와무라 아키노리를 영입하면서 위긴턴을 올해의 1루 불박이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내일 신인선수 입단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4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단 사무실에서 2007년 신인선수 입단식을 갖는다.  
입단식에는 투수 오준형(23), 양현종(19) 등 신인 10명이 참석해 올 시즌 포부와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2007년 신인선수 명단.  
▲오준형(광주일고-인하대·1차지명·투수) ▲양현종(동성고·2차 1번·투수) ▲김연훈(군산상고-성균관대·2차 2번·내야수) ▲이호신(휘문고-경희대·2차 3번·외야수) ▲성민규(대구상원고-네브라스카대·2차 4번·외야수) ▲권윤민(동산고-시카고립스 AA·2차 5번·포수) ▲김주형(덕수정보고·2차 6번·내야수) ▲박윤식(제물포고-인하대·2차 8번·외야수) ▲조동현(경남고-한양대·2003년 2차 7번·투수) ▲이인철(배명고-고려대·2003년 2차 8번·투수)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일(수)  
▲V리그(KAL-삼성)(14:10·KBS1)  
《GS 칼텍스-KT&G》(16:00·KBSN S-SPORTS), 《현대캐피탈-삼우》(18:30·KBSN SPORTS)  
▲프로농구(전차팬드-동부)(18:50·X-sports)  
▲WTA 테니스 왓슨스 워터(클러스터스-팬지에)(19:10·SBS스포츠)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8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월 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 / 1년 회원제  
오전 야간여름+오전여름겨울+겨울여름 모두 6강
- 2개월 이문종합반  
오전 야간여름+겨울여름 6강
- 문제풀이반(매일 일과형)  
오전여름겨울+겨울여름 6강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교수진 그대로 광주에서 강의합니다.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엽 교수	윤경근 교수
수사	영어	영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1월 2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교정직 특채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2007년 3월-5월중 실시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800여명 명채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8년 1월 시험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1차개강: 12월 18일, 2차개강: 1월 2일

**김영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4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 초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동부경찰서 ☎227-8088

국내결혼, 국제결혼 전문업체

**결혼정보 모모**

결혼정보모모는 국내, 국제결혼(베트남, 몽골, 일본)전문업체로서 풍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반려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가장 잘 맞는 커플을 맺어 주교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중매와 성혼위주의 중매로 고객 여러분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성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맞선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설례임으로 준비하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배우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세요!!

결혼(초혼, 재혼, 반혼, 국제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결혼정보모모**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출발, **결혼정보모모**에서 아름다운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결실을 맺으십시오!!

- 국내 초혼, 재혼 한번 회원이 되시면 성사까지 지속적인 맞선을 주선합니다.
- 국제결혼 당사에서 하는 일은 당신의 삶을 좌우하므로 친절, 정직, 성실로 아름답고 순박한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외국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의사·회계사·영양사**

결혼정보 모모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3가 1-1번지 광주빌딩 601호

문의 (062) 223-5949  
무료전화 080-987-6353